

화려한 대회 뒤에 숨은 땀방울

Siba 2003에서 만난 사람들

제과인들의 흥겨운 축제 Siba 2003은 막을 내렸지만 그 여운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있는 덕분이다. 한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Siba 2003의 숨은 공신들을 만나 애환을 들어봤다.
(취재·김영주 / 사진·여상현, 안성철)

케이크 카페 담당 양지원 씨(강남·서초지회 사무국장)

그 전에는 Siba에서 특별하게 나에게만 주어진 일이 없었는데 올해 Siba 2003에서는 케이크 카페를 맡게 됐다. 나홀 동안 힘들고 고된 일의 연속이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생겨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케이크 카페는 그 동안 Siba가 열릴 때마다 실 곳이 없다고 지적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쉼터이다. 제과업체에 함께 일하면서도 서로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케이크 카페에서 반가움을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테이블이 비어 있을 때가 없을 정도로 케이크 카페는 관람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케이크 카페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케이크의 종류가 많지 않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관람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케이크 카페는 무엇보다 '애정'이 듬뿍 담긴 공간이다.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그 곳에서 모인 사람들의 '제과'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라 각별하다.



송은순

양지원

협회 홍보 부스 담당 송은순 씨(양천지회 사무국장)

Siba 2003에서 홍보 부스에서 일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 어깨가 무거웠다. 올해 맡은 일은 제과협회의 홍보 부스를 방문하는 여러 기술인과 일반 사람들에게 제과협회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역할이다. 예전과 달리 협회 홍보 부스가 커져서 눈에 잘 띄는 데다, 사람들을 접대하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 이곳에서의 안내 역할이 중요했다.

부스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직원들을 이끌고 온 어느 사장님이다. 그동안 수고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책을 선물하는 모습이 절로 미소를 짓게 했다. 천안 지역 회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협회 부스를 함께 지켰던 천안 사무국장을 격려한 모습도 인상 깊었다. 제과협회와 회원을 끈끈하게 이어주었던 협회 홍보 부스에서의 추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엄마와 함께 케이크 만들기 도우미
김은경 씨(대한제과기술학원 학원생)**

우연히 참여한 이번 Siba 2003은 신기함 그 자체였다. 100명 분의 생크림을 만들고 과일을 나누고 정리와 청소 등 소소한 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태어나서 처음 접한 행사 진행을 돕는 일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아이들 옆에서 케이크 장식을 도와주는 것도, 얼굴에 크림을 문혀가며 때로는 먹기도 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일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였다.

행사에 참여한 덕분인지 이를 내내 Siba 2003의 모든 행사를 빠짐 없이 볼 수 있었다. 경진대회, 월드페이스트리컵 한국대표 선발전, 각종 부대행사와 산업전까지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규격심사에서 탈락해 출품을 못했지만 경진대회를 빛낸 다른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꼭 도전해 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 대회를 마치면서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과 한가지 약속을 했다.

"우리 현장에 나가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더라도 2년에 한번 Siba에서 꼭 만나자. 서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대상을 받을 때까지 꼭 출전하자".
올해 Siba 2003에 참여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제과에 대한 샘솟는 '열정' 이었다.



김은경

고화원

**엄마와 함께 케이크 만들기, 월드페이스트리컵 한국대표 선발전, 경진대회 규격심사 진행요원
고화원 씨(르메이에르과자점 대표)**

각종 행사에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어느덧 Siba 2003이 막을 내렸다. 미처 다른 행사를 볼 시간이 없었지만 곁에서 Siba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참관하는 것보다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결과 대회를 좀더 진지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엄마와 함께 케이크 만들기' 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아이들 앞에서 실연하면서 친진난만한 아이들과 함께한 기억이 가장 즐거웠다. 내 딸 또래의 아이들이 케이크를 만들면서 즐거워하던 모습, 진행요원들과 사진 찍는 일을 아이들보다 더 좋아하던 엄마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다.

월드페이스트리컵 한국대표 선발전 선수들이 작업하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자리에 앉지 못해 힘들었지만 진행요원을 하면서 선수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기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아쉬웠던 점은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진대회 진열이 있었던 날에는 업체 부스가 마무리 작업을 하는 통에 먼지가 날리고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혹여나 꿈을 안고 출품하러 온 제과인들이 실망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앞으로 Siba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각 분야별로 공간을 분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Siba 2003은 제과인들에게 전국적으로 제품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각종 대회에 출품해 자신의 실력을 가능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앞으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더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해 본다.